

인정,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쓰여지지 않은 공간을 발견하다: 지리학이 인문학인 또 다른 이유

박승규*

Recognition Saves a Space where Invisible, Inaudible, and Unwritable - Another Reason for Geography as Humanities -

Park, Seung-kyu*

요약 : 이 논문은 '인정(recognition)' 을 통해 인간과 공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정은 인간의 근원적 욕구이다. 인간은 누구든지 어디서나 인정받으려 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신의 존재이유를 확인받기 위해 인정투쟁을 벌인다. 헤겔이 제시한 '인정' 은 주체-객체의 인간관에 근거한 상호인정 과정에 근거한다. 반면에, 서로주체성을 토대로 하는 '인정' 은 나와 너의 관계를 토대로 '우리' 를 강조하는 인간관에 근거한다. '인정' 은 인간과 공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지금까지 지리학에서 다루었던 보이는 공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넘어, 보이지 않는 공간에 대한 지리학의 역할을 재근한다. 보이지 않는 공간을 보이게 하는 과정을 통해 지리학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기여한다.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공간과 이야기가 쓰여지지 않는 공간에 담겨있는 지리적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한 모습을 고발하고,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같은 논의의 궁극적 목적은 지리학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인문학으로서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어 : 인정, 이야기, 서로주체성, 하얀 글쓰기, 보이지 않는 공간, 인정투쟁

Abstract : The present paper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being and space through 'recognition.' Recognition is the natural desire of human being. Every human being wants to be recognized for what they do in everywhere. Human being enhances their own identity and fight for the *raison d'être* to be recognized by others. Hegel's recognition is grounded by a process of mutual recognition based on the subject-object view of human beings. On the other hand, the recognition based on inter-subjectivity is founded by the view of human beings emphasizing "we" on the ba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I. These two meanings of recognition make it possible to newly recognize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beings and space. In the paper, I emphasize the role of geography about the invisible space over the geographical recognition regarding the visible space dealing in previously geography. I expect to be recovered the nature of geography by revealing the invisible space. Also, the geographical discovery is presented about two spaces including inaudible space and unwritable space but having story via 'écriture blanche.' In terms of the discovery, I criticize irrationalities and discrepancies of our society and suggest ways of solving problems. The goal of the discussion is to support the overcoming of the immediate geography crisis as well as communicate with the world as humanity.

Key Words : recognition, narrative, inter-subjectivity, *écriture blanche*, invisible space, struggle for recognition

*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opos@cnue.ac.kr

1. 서론

지리학을 인문학이라 했다. 지리학이 인간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학문이라 했다. 인간의 일상적인 삶이 궁금해 질문하고 답하는 우리 삶과 밀접한 학문이라 했다. 또한 지리학은 인간 존재의 심연으로 다가갈 수 있는 학문이라 했다. 지리학은 일상적인 사물이나 공간을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학문이라 했다(Park, 2010).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한 번의 기획으로 완성될 수는 없다. 한 번의 기획¹⁾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리학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한 번의 기획으로 지리학의 학문적 존재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다. 지리학이 우리 삶과 밀접한 학문이며, 공간을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학문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인간은 공간위에 거주한다. 그렇기에 인간 개개인의 공간은 자아의 연장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주며, 내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 말해준다. 공간은 인간 존재와 관련된 많은 기억을 담고 있다. 우리 삶의 과정에서 공간은 늘 함께 한다. 과거에 대한 기억에서도 공간은 늘 또렷하다. 친구와 언제 무엇을 하고 놀았는지에 대한 기억은 흐릿해도, 어디에서 놀았는지에 대한 기억은 생생하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즐거움과 행복감을 경험했던 공간에 대한 기억이다. 일상적 경험에서 공간이 인간을 이해하는 중요한 인식소임을 확인한다.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은 사람들의 삶터를 폐허로 만들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집과 일터만을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니다. 그 공간에 담겨있던 개인의 기억마저 앗아갔다. 그 공간을 토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의미마저 황폐하게 했다. 지진과 해일로 잃어버린 것은 삶터가 아니다. 그 공간에 거주하고 있었던 인간 존재 자체이다. 공간은 인간의 삶 그 자체이다. 그렇기에 그들의 삶터가 파괴된 것이 아니다. 인간의 삶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곳에 있던 나도, 우리도 모두 사라지고 없다. 내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곳에 있던

공간도, 시간도, 세계도 모두 무너졌다. 공간의 소멸은 인간 삶의 소멸을 의미한다. 공간은 인간을 대변하고, 그것을 통해 인간은 자신을 확인받는다²⁾.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공간은 인간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내가 거주하는 공간에 퇴적된 기억은 나의 존재 기반이다. 내가 존재했었던 공간의 소멸은 나에게 대한 망각을 재촉한다. 망각은 나를 잊게 한다. 망각의 강요는 우리를 존재하지 못하게 한다(Lee, 2010, 20). 망각은 과거의 기억에서 '나' 라는 존재를 소멸시킨다. '나' 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들리지 않게 한다. 나는 그저 사물 가운데 하나로 존재한다. 기억이 상실된 인간으로서 나는 공간을 구성하는 부속물의 하나로 전락한다. 나를 부정하는 방법이다. 나의 기억을 망각하게 강요하는 것은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은 아니다. 하지만, 훨씬 더 근본적으로 나를 부인하게 한다. 훨씬 더 근원적으로 세상에서 나를 지우려 한다. 일상적 경험의 차원이든, 존재론적 차원에서든 공간에 새겨져 있는 나에게 대한 기억의 소멸은 인간에게는 커다란 상실로 다가온다.

그렇기에 인간은 근원적으로 자신을 인정받으려 한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떤 공간을 소비한다. 그 공간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았을 때 개인의 정체성은 강화된다. 그 공간에서의 존재이유를 확인한다. 하지만, 굴욕과 무시를 경험하면, 삶의 의미를 상실한다. 나에게 대한 정체성의 혼돈을 경험한다. 나를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공간의 힘이 더 이상 나를 지탱하지 못한다. 인간 존재에게 인정은 그런 힘을 갖고 있다. 인정받지 못하고, 망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두렵다. 그렇기에 인간은 개별자로운 집단으로든 자기 보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지속적인 인정투쟁을 벌인다(Moon (translation), 2001, 202).

헤겔(Hegel)은 인간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보았다. 인정 욕구가 권리, 존엄성, 자유와 평등, 주체성의 실현을 위한 근원적 동기로 작동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반이라 말한다(Lee, 2011, 55). 삶의 토대인 공간에서 인간은 자유인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존엄성을 인정받으려 한다. 자유와 평등을 실현

하려고,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에게 각인시키려 한다. 그렇기에 자신의 일상공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인정투쟁을 벌인다. 일상공간에서의 인정 경험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것을 토대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게 한다. 자신만의 장소와 공간을 만들고,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악셀 호네트(Axel Honneth) 또한, 인정 개념을 통해 하버마스(Harbermas)의 이론적 틀을 넘어서고자한다. 호네트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주장의 타당성을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하버마스의 개념에 헤겔적 형태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분명한 인정투쟁 모델을 만들려 한다(Moon (translation), 2001, 202). 헤겔과 호네트는 인간이 자신을 알아가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기에 헤겔과 호네트는 공동체 구성원간의 상호인정 과정을 회복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

‘인정(recognition)’은 주체가 자기 자신의 고유한 세계, 자기 자신의 고유한 발전을 위해 권리를 쟁취하려는 투쟁의 문제이다. 점령당하고 억눌린 다양성의 해방을 위한 투쟁을 뜻하기도 한다. 인정의 문제란 다룰 수 있는 권리, 즉 정치, 경제, 교육 혹은 소통의 영역에서 서로 다룰 수 있는 권리의 문제이다(Ahn (translation), 2009, 430). 동일시와 같음이 우선시 되는 사회가 아니라, 차이와 다름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인정은 더욱 빛을 발한다. 권력적 시선에서 오는 수직적 인정이 아니라, 나와 동일한 자유로운 주체로서 타자에 의한 수평적 인정은 세상에 대한 자신만의 목소리를 외칠 수 있도록 한다.

실즈(Shields)(1997)는 ‘나는 공간을 차지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를 통해 인간이 공간적 존재임을 천명한다. 인정 투쟁의 문제가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가는 것의 다른 표현이라 한다면 그것은 공간의 문제이다. 공간은 인간의 정체성을 표현해주고, 인간 존재의 깊이와 밀도를 표현해주는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다(Santos, M., 1995, 197). 인정의 양상은 어디에서 인정받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무엇을 인정받고, 무엇을 인정받지 못하는가는 내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어떤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가에 따라 인정투쟁의 과정은 성공적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인정은 공간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근원적 요소이다. 인간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생산한 공간은 실존적 기반이며, 인간 존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준다. 인간 삶의 과정에서 일상 공간의 생산과 소멸은 삶의 생성과 변화를 그대로 반영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인간은 끊임없이 인정투쟁의 장에 노출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정받기위해 본능적으로 노력한다. 인정투쟁의 문제는 인간 존재가 생산하는 다양한 공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노두인 셈이다.

지리학에서도 인정과 관련된 논의가 있다(Choi, 2009a; Choi 2010; Choi *at al*, 2011). 지리학에서 다루는 인정은 다문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한다. 위의 연구에서는 외국인의 국내유입이 증가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다문화 현상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간과 장소의 문제이며, 사물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한다. 나아가 다문화사회에서의 공간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문화 사회라는 개념 대신에 ‘다문화 공간’을 제안한다. 외국인의 삶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그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한다는 것이며, 그들 세계를 받아들인다는 것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인정의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더 나아가, 인간과 공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해 준다. 인간의 근원적 욕구로서 인정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관계의 흔적은 공간에 퇴적되어 있다. 그렇기에 인정의 문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인간과 공간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이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철학적 개념으로서 ‘인정’을 이용하여 인간과 공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것은 지리학이 인문학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인정을 인간 존재와의 연관속에서 파악한다. 인정은 인간의 근원적 욕구이고, 인간의 근원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지리학이 인간의 근원적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힌다. 이를 위해 헤겔의 인정 개념을 살펴보았다. 헤겔은 인정을 통해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에 대해 언급한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자신있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인정이지만, 정작 헤겔의 인정 개념은 주체-객체의 인간관을 전제하고 있어 상호인정 과정에서 상대방을 타자화시키는 약점을 보인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주체성의 이념에 근거하여 나와 너의 만남을 통해 형성되는 인정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헤겔의 상호인정 개념의 약점을 보완하고, 온전한 의미에서 인간의 근원적 개념으로서 인정 개념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인정을 토대로 한 존재론적인 논의가 지리학에서 어떤 새로운 공간인식을 가능하게 하는지 살펴보았다. 인정 개념을 이용하여 관성적으로 인식하던 지리인식과 공간에 대한 사유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지난번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선택과목 개편과정에서 나타났던 지리학의 학문적 위기를 상기하면서 지리학의 학문적 존재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에서 왜 지리를 가르쳐야 하고, 학문사회에서 지리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다시금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2. 인정, 인간 존재를 설명하다: 사회적 존재론에서 인간학적 존재론으로

1) 헤겔의 인정,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규정하다

헤겔은 인간이 자연이나 다른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 두 종류의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하나는 사물을 경험하고 사물에 대해 파악하는 의식, 즉 '대상의식'이다. 다른 하나는 경험하고 파악되는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일 경우이다. 인간은 사물과 대상을 파악하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의식, 즉 '자기의식'을 갖는다. 자기의식은 고립되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한한 운동을 펼치면서 자신을 변화시킨다. 또한 자신과 반대되는 방향으로도 자신을 변화시킨다. 헤겔은 이처럼 자기의식이 자신을 이중적으로 만들고, 그와같은 이중적인 과정을 통해 정신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을 '인정(recognition)'이라

한다(Lee, 2011, 55-56). 자기의식은 다른 사람의 자기의식을 만날 때, 대립하면서 자유롭게 존재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기의식과 대립하는 자기의식은 인정받을 때만 존재하며, '인정받는 것' 일 때만 자기 자신으로 존재한다(Lee, 2011, 55).

헤겔은 이같은 인정투쟁 과정을 『정신현상학』 '자기의식' 장에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사례로 보여준다. 주인은 노예에게 인정받고 있지만, 거짓된 인정과 존경으로 자신을 대하고 있어 고민한다. 진정으로 노예에게 인정받기 위해 주인은 노예를 자신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인격으로 해방시켜야 한다. 하지만, 노예를 자유로운 인격으로 해방시켰을 때 주인은 노예에게 진정한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노예는 주인을 벗어나 도망갈 수도 있다. 노예와 인정투쟁에 빠져 있는 주인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된다. 하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노예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 노예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나와 같은 자유로운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 서로가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 헤겔이 말하는 상호인정이다(Kang, 2010, 386-389). 이처럼 인정은 내가 인정받기 위해 나는 나와 동등한 자유로운 인격을 갖고 있는 상대방을 전제한 상태에서 일어난다.

하지만, 헤겔에게 인정은 단순하게 인간 상호간의 인정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에게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에 존재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개인은 '공동체성' 안에 접목될 때, 비로소 자기 스스로를 개인으로 이해하고 정의할 수 있다. 이때 공동체성이란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자신을 개인으로 이해하고 정의할 수 있게 하는 공동체의 객관적 조건이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헌법과 같은 정치제도나 문화와 같은 공동체의 생활방식에 녹아있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는 초월적 선을 의미한다(Kim, 2009, 160). 그렇기에 헤겔의 인정 개념은 공동체성을 토대로 하는 사회적 존재론에 근거한다(Kim, 2009, 161). 헤겔의 인정 개념은 공동체 자체의 문제 틀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공동체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인정은 가능하지만, 공동체와 다른 차이와 다름을 드러내기 위한 인정은 어렵다.

마켈(Markell)도 헤겔이 인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본다(Markell, 2003, 93, Lee, 2005, 77-78 reciting). 하나는 기존의 독단적이고 추상적인 형식이 철학을 비판하고 사회질서와 인간행위를 이끄는 모순을 강조할 때 헤겔은 '진단의(diagnostic) 목소리'를 낸다. 반면에, 가족, 시민사회 그리고 인륜성이 체현된 국가 등의 시스템을 강조할 때 헤겔은 '화해의(reconciliatory) 목소리'를 높인다. 우리가 '진단의 목소리'에 강조점을 둔다면, 예측 불가능한 개별 행동이 돌출하는 것에 주목할 수 있다. 반면에, 우리가 '화해의 목소리'에 강조점을 둔다면, 예측 불가능한 개별적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 가정과 시민사회, 국가가 원하는 의식에 부합하는 행동만 허용된다. 인정이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개인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 공동체가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헤겔의 인정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인간 존재는 공동체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적 존재이다. 인간의 본질적 요소와 관련된 인간학적인 문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헤겔은 공동체성의 의미구조를 통해 사회 구성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한다. 나와 타자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인정 과정이 결국은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체계에 의해 좌우된다³⁾. 헤겔은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적이고 역사적으로 맥락화되어 있는 인정구조가 인간의 긍정적 자기의식을 갖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공동체성에 기반하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자신의 긍정적인 삶의 과정을 살아갈 때,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공선이 개인의 가치에 우선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개인은 다양한 공간적 경험을 갖는다. 각각의 공간에서 개개의 인간은 자기의식을 갖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간다. 그렇기에 자신의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진단의 목소리가 반영된 상호인정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헤겔의 인정은 그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럼에도 헤겔의 인정 개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 사회의 인정구조를 통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무의식의 기반에 천착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

동체성에 근거해서 행해지는 상호인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발견되지 못한 미지의 공간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권력적 시선에 근거한 '하나의 인정' 구조가 유통되면서 우리에게 미처 인식되지 못한 우리의 무의식적인 지리인식에 대해 살펴보게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인간과 공간의 관계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다.

2) 서로주체성의 인정, 인간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다

근대적 인간은 나와 다른 타자에 대한 이해없이 이성적이고 고립된 자기관계 속에서 자아의 주체성에 대해 파악한다. 이런 주체성을 '홀로주체성'이라 하고, 홀로주체성은 타자적 주체를 배제하는 주체성이다. 반면에, 타자와의 주체적 만남을 통해 생성되는 주체성을 '서로주체성'이라 한다(Kim, 2008, 234). 이것은 오직 타자와의 만남에서 나에 대한 참된 의미를 찾아간다. 헤겔은 서양의 철학자 가운데 이같은 서로주체성의 통찰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헤겔의 인정이론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자기의식을 형성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간다. 헤겔의 인정이론은 실천적 자아의 형성이 주체들 사이의 상호인정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또한, 상호인정 과정에 근거해 다양한 상호인정의 형태가 존재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Moon (translation), 2011, 140-141). 인정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확인받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할 때, 헤겔의 인정투쟁에서는 나와 타자와의 관계에서 상호인정이 이루어진다고 보기에서 서로주체성의 이념에 가까이 있다.

하지만, 헤겔이 서로주체성의 이념을 온전히 설명해 주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헤겔은 자기의식이 가능하기위해 타자와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우치고 나와 타자와의 관계를 참된 인간학적 만남의 관계로 이해하지 못한다⁴⁾. 헤겔이 인간을 공동체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에 근거해 인정이론을 전개하면서 개인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발현할 수 있는 인정의 과정보다는 공동체성을 반영하는 인정의 과정을 우선시하였다. 헤겔의 인정이 나와 너의 관계에서 상호인정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하더라도 나

와 너의 관계 방식 자체가 주체-객체 관계의 도식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와 너의 본질적 속성이 의미를 갖지 못한다(Kim, 2008, 250). 그런 점에서 헤겔의 인정은 서로주체성의 이념을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있다.

부버(Buber)는 주체-객체의 관계에서 형성된 인간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느 한쪽의 범주적 특성을 강조하여 드러난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이며, 그것은 결코 진실한 인간의 모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Yoon (Translation), 2007). 부버는 인간의 본질을 '사이존재'로 본다. '사이존재'란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의 신체와 다른 인간의 신체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을 말한다.

이때 사이는 인간의 신체를 전제로 한다. 인간의 신체와 신체 사이의 빈 공간은 몸을 통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언어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실존적인 만남의 과정에서 성립하는 그런 공간이다(Park, 2009). 따라서, 사이존재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만남을 전제로 한다. 나만의 삶의 과정에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 관심 갖는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실존을 찾는 것이 어렵다. 사이존재는 이미 나만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존재를 가정한다. 내 몸이 있는 곳과 더불어 나와 함께 있는 타인의 몸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⁵⁾

부버의 논의는 주체-객체로 이루어진 인간관을 극복하게 한다(Yoon (translation), 2007). 헤겔의 인정 이론이 갖는 결함은 나와 너의 관계를 인격적 관계의 범주가 아니라, 주체-객체의 관계를 통해 서술한다는 데 있다(Kim, 2008, 252). 이것은 헤겔이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인식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에게 나의 자기의식과 타자의 자기의식 간의 인격적 관계는 공동체의 의미구조를 통해 사회를 구성하는 것에 늘 가려져 있었던 것이다(Kim, 2009, 183). 그렇기에 그에게 상호인정의 문제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타자화된 너에 의해 이루어진다. 주체-객체의 인간관에서 벗어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부버는 내가 있던 중심에 너를 배치한다. 부버의 사이존재는 말하는 사람의 능동

성과 듣고 있는 사람의 수동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부버는 말하는 나와 말하는 너를 상정한다. 능동과 수동의 조합이 아니라, 능동과 능동의 조합을 지향한다(Woo, 2007).

서로주체성의 문제는 헤겔의 인정개념이 전제하고 있는 사회적 존재론을 보충한다. 사회적 존재론이 인간학적 존재론의 환원된 결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한다면, 서로주체성의 개념은 인간의 본질에 조금 더 다가가 인간을 이해하고, 인정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통로인 셈이다. 서로주체성은 타자를 배제하지 않고, 내 삶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을 중시한다. 서로주체성의 관점에서의 인간 존재는 망각과 무시, 굴욕 등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나에 대한 타자의 상호인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개개인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각자의 세계에서 각자의 삶을 산다.

타자에 대한 인정은 그의 상황을 인정하고 그가 세계속에 존재하는 방식을 존중한다. 반면에, 타자에 대한 부정의 타자의 세계를 점령하고 그의 시간과 장소를 새롭게 규정하며, 타자의 영혼과 타자의 생활세계를 말살하기 위한 구실로 기능한다(Ahn (translation), 2009, 430). 그렇기에 서로주체성에 근거한 인정의 구조는 개인의 시간과 장소를 존중하고 배려한다. 자신의 시간과 장소를 새롭게 규정하도록 허락한다. 자신만의 공간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두렵지 않게 한다. 망각과 무시, 굴욕 등의 경험이 사라진 삶의 과정은 개인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세상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도록 한다. 권력적 인정에 갇혀있던 인간의 모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권리, 존엄성,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한다.

3. 지리학, 인정을 통해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 않았고, 쓰여지지 않았던 공간을 발견하다

1) 지리학의 본질, '보이지 않는 공간'을 보이게 하다

세상을 인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부정'이다.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모순적인 삶을 부추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모른다. 부정적 심정을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화해로, 보다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인정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본능적으로 세계를 인정하고 삶을 보람있게 살고 모든 것을 배려하며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것을 돌우워 주어야 한다. 모든 것은 삶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무의미한 것을 무의미한 그대로 인정하면, 거기에서부터 의미를 찾는 일이 시작된다. 부정을 통해 죽이는 것은 한번이지만, 인정을 통해 살리는 것은 한없이 돌보아주어야 하기에 쉽지 않은 일이다 (Kim and Moon, 2005, 258-259).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일상공간에 대한 부정은 새로운 지리인식과 관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간단하고 쉬운 일이다. 하지만, 새로운 공간을 인정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의미세계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 삶의 과정에서 새로운 공간의 부침은 계속해서 나타난다. 공간의 생산은 존재에 기반하고 있으며, 존재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한 공간에 대한 인정은 공간 생산 주체에 대한 인정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우리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공간의 의미는 중요한 공간과 그렇지 못한 공간의 구별을 넘어서는 것이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가운데 중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듯이, 존재를 기반으로 생산된 모든 공간은 인정되어야 한다. 모든 공간에 대한 인정을 통해 그 공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지리학자가 중요하지 않은 공간이라고 치부하는 순간에 그 공간에 대한 의미 발견은 미지의 과제로 남는다. 지리학에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공간은 우리 삶에서 가

치를 드러내지 못한다.

지리학의 본질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의미가 발견되지 않은 공간을 찾아내고, 그 공간을 통해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우리 사회에 대해 이해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리학에서 의미를 부여받지 못한 공간을 인정하고, 그 공간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제시해야 한다. 지리학에서 다루는 보편적 공간 범주에서 벗어나,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지만, 의미가 발견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공간(invisible space)'에 천착해야 한다. "예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한다."는 파울 클레(Paul Klee)의 말은 보이는 것을 떠받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의 의미세계를 열어준다. 클레의 이 말은 예술이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예술의 본질에 대해 말하고 있다(Han, 2007, 50).

클레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이다. 하나는 화가가 사물을 볼 때, 화가의 신체적 실존과 사물 사이에 서로 열리고 여는 세계 경험이 발생하고, 이것이 신체적 실존을 통해 전해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신체적 실존을 통해 전해져 온 것을 화가는 특정한 예술적 표현 형식을 통해 그림으로 옮겨놓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한다 (Han, 2007, 51-52). 지리학자는 자신의 실존적 공간으로서 일상 공간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폭을 넓히고, 자신의 언어를 통해 일상 공간의 의미를 세상에 알릴 수 있다. 보이는 공간만큼이나 보이지 않는 공간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이 보이는 공간의 의미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클레는 화가의 역할이 눈에 보이는 세계의 껍질을 있는 그대로 그림으로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내면에서 비밀스럽게 통찰한 것을 그림으로 옮겨놓는 것이라 했다. 클레에게 그림을 그리는 작업은 화가가 자신의 경험세계에서 일어나는 삶의 현실성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와같은 삶의 근원적 장소는 화가와 세계가 만나는 '사이영역'이다. 클레가 말하는 사이영역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무의식과 의식, 인간과 자연, 주관과 객관과 같은 양극이 역동적으로 교차하는 영역이다. 화가는

삶의 현실성을 산출하는 양 극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사람이다(Han, 2007, 53). 어느 한쪽의 이념이나 가치에 기울지 않고, 양 극의 균형을 잡으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이 화가인 것이다.

클레의 말에 동의한다면, 지리학자는 중요한 공간과 그렇지 못한 공간, 보이는 공간과 보이지 않는 공간 사이 영역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에 공간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이때 보이는 공간은 가치나 의미를 갖고 있는 공간일 수 있고, 정상화된 공간일 수 있으며, 홈페이지 공간이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공간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공간을 의미하진 않는다. 보이지 않는 공간은 가치나 의미를 부여받지 못한 잊혀진 공간이고, 망각의 공간이고, 타자화된 공간이고, 매끄러운 공간이다. 지리학은 일상 공간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면서 어느 하나의 가치체계를 대변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익숙하고 낯익은 공간에서 벗어나 불편하고 낯설은 공간에 대해서도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영국 사람들에게 안개는 일상이다. 안개 없는 일상을 생각하기 어렵다. 하지만, 영국 사람들이 안개를 발견한 것은 터너(Turner)의 풍경화를 통해서이다. 일상적인 자연현상으로서 안개는 가시적으로 인식되는 것이지만, 영국의 자연에서는 보이지 않는 대상이었다. 터너는 이같은 안개를 예술과 현실의 '사이 영역'에서 균형을 이루어 내면서 멋진 풍경화로 재탄생시킨다. 영국 사람들은 터너가 자연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완성시킨 풍경화를 통해 비로소 영국의 안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Ma, 2008, 203). 예술가의 그림이 우리에게 익숙한 현상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듯이, 지리학자는 우리 일상을 구성하는 공간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정상화된 공간과 타자화된 공간의 구분도, 홈페이지 공간과 매끄러운 공간에 대한 구분도 새로운 공간을 인식하기 위한 노력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공간을 보이게 하는 작업은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기 위해 시도해야 할 중요한 작업이다. 칼비노(Calvino)의 『보이지 않는 도시들』에 등장하는 많은 도시들은 현대 도시가 갖고 있는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가치를 녹여내고 있다. 마르코 폴로

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보이지 않는 도시의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가치들을 줄여 나가면 언젠가는 유토피아의 세상을 찾게 될 것이라는 칸의 믿음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미래의 도시는 현재의 도시를 벗어나서는 결코 세워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Park, 2010, 925). 지리학의 미래는 지금보다 밝다. 다만, 지금과 같은 공간인식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지리인식을 보여줄 때 가능하다. 보이지 않는 공간에 대한 인식만이 지리학의 미래를 밝게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과는 구별되는 타자화된 공간과 장소에 대한 관심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인간과 공간의 관계는 우리 삶의 생성과 변화의 과정에서 진화해 간다. 새로운 공간의 등장과 부침은 새로운 지리인식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새로운 인간과 공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보이지 않는 공간에 대한 의미 발견은 예술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것을 통해 지리학은 인간 삶의 변화와 근원적 요소를 설명할 수 있는 학문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공간의 발견과 일상 공간에 대한 의미 부여는 우리 삶을 새롭게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의 실존적 공간으로서 생활터전에 대한 대안적 인식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게 한다.

예술은 사람들이 예술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인식하도록 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예술의 본질에 충실하려 한다. 지리학도 예술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인간 삶을 구성하지만, 보이지 않았던 공간에 대한 발견은 지리학의 본질에 충실한 것이다. 지리학을 통해 새로운 공간이 세상에 등장한다. 그것을 통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삶의 층위가 있음을 보여준다. 보이지 않는 공간을 통해 지리학은 새로운 학문으로, 인간의 삶에 대해 말하고, 설명할 수 있는 학문으로 거듭난다. 공간과 장소에 담겨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지리는 세상과 소통한다. 그런 과정에서 인간과 공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진화하고, 지리학은 변화한다.

부정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새로운 공간에 대한 인식은 시작한다. 지리

학은 상식적 공간에 대한 통념적 인식에 근거하지 말아야 한다. 공간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삶을 이해하기 위해 지리학은 변화해야 한다. 인간의 삶은 공간을 기반으로 한다. 인간의 삶에서 공간은 출발점이자 귀결점이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공간에 대한 발견은 지리학자들의 몫이라기보다는 인접한 학자들의 관심 속에 이루어져 왔다. 공간이 지리학자만의 독점적 대상일 수는 없지만, 공간을 통해 지리학이 세상과 소통하려 한다면, 지리학은 지금과는 다른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하고 낯익은 공간에 대해 이야기한다. 쾌적하지 않은 공간에 대해 언급한다. 작고 초라한 공간을 세상에 드러낸다. 우리 삶에서 늘 필요한 공간이지만, 정작 지리학자들에게 연구 대상이 되지 않았던 그런 공간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나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인간 존재가 생산하는 다양한 공간에 대해 ‘철학하기(philosophieren)’를 시작해야 한다(Park, 2009). ‘철학하기(philosophieren)’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질문하기이다. 지속적인 질문의 과정을 통해 지리학이 새로운 학문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의 출발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인구조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공간에 대한 발견에서부터이다.

2) 공간에 대한 ‘하얀 글쓰기(écriture blanche)’, 우리 사회 모순과 부조리를 고발하다

우리 삶터로서 공간의 의미는 다층적이다⁶⁾. 이질적이고 균열적인 공간 조각의 퍼즐을 맞추어야만 우리 삶터의 의미를 완성한다. 파편적인 공간 조각을 통해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야기(narrative)’를 통해 가능하다. 각각의 공간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는 그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인간에 대해 말해준다. 자기 자신과 집단의 정체성에 대해 말하는 것은 공간과 장소에 퇴적되어 있는 일상적인 이야기의 편린들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 공간에서 들을 수 있고, 쓰여지고 있는 이야기는 다양한 인간들의 삶만큼이나 다양하지 않다. 권력을 갖고 있는 정상화된 사람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만 들어오고 쓰여진

다. 타자화된 존재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그들의 이야기는 쓰여지지도 않는다.

서로주체성을 통한 인정은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듣게 하고, 쓰여지지 않은 이야기를 쓴다. 나와 너의 인격적 만남을 전제로 한 상호인정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배제하지 않고, 타자화하지 않는다. 내 삶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도 관심을 갖는다. 인정투쟁 과정에서 굴욕과 무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쓰여지지 않은 이야기에 관심 갖는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음을 알게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굴곡이 있음을 알린다. 그렇기에 서로주체성에 근거한 상호인정은 타자화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삶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공간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견디어 가는 사람들도 있음을 알려준다.

지리학은 공간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과 소통한다. 지리학은 관성적이고 통념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공간을 발견하고, 들리지 않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쓰여지지 않은 이야기를 기록해 세상과 교류한다. 들리지 않는 목소리와 쓰여지지 않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공간은 지리학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공간이다. 지리학자가 발견해 세상에 알리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공간이다. 사회 속 타자로서 존재해야 하는, 인정받기 보다는 굴욕과 무시를 경험하는 인간 존재의 공간이다. 들리지 않는 목소리와 쓰여지지 않은 이야기가 가득 담겨있는 공간과 장소는 현실의 모순을 드러내고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알려야 한다. 지리학의 학문적 존재이유는 이처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부조리한 모습과 권력에 기울어져 있는 이념적 지형을 바로잡는 것이다(Nam, 2010, 693).

바르트(Barthes)는 ‘하얀 글쓰기(écriture blanche)’를 통해 현실의 모순을 들추어내고, 본질을 회복하려 한다. 사회 현실은 온갖 이데올로기에 젖어 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벗어나 버리지 않고 글을 쓰는 것은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에 기여한다. 그렇기에 피하지 않고 모순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모순을 드러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되었음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글쓰기의 형태를 바르트는 ‘글쓰기의 영도(零度)’라고 규정하고, 그런 상태에서 쓰는 글을 ‘하얀 글쓰기’라고 불렀다. 바르트가 말하는 ‘하얀 글쓰기’는 기존의 모든 이데올로기와 형식들을 걷어내고, 모든 허위 관념과 지배이념을 폭로하는 것이다. 그래야 허위의 글을 쓰지 않고, 지배 이념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는다⁷⁾.

바르트의 이같은 생각은 지리학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지리학은 ‘하얀 글쓰기’를 통해 우리 사회에 감추어져 있던 공간을 찾아내야 한다. 우리가 당연시해왔던 공간의 범주를 벗어나, 새로운 공간 범주를 발견해야 한다.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쓰여지지 않은 이야기를 갖고 있는 공간은 우리 주변에 퍼져 있다. 푸코(Foucault)가 ‘분산의 공간(space of dispersion)’이라 명명한 이같은 공간은 의미를 부여받지 못한 공간이다. 우리 삶과 관련이 없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지배이념과 허위 관념에서 배제된 숨기고 싶은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하얀 글쓰기를 통해 세상에 알려야 하는 공간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공간이고, 타자들의 공간인 것이다.

‘하얀 글쓰기’를 통해 언어의 원형을 회복하려 했던 바르트의 생각처럼, 지리학에서도 ‘하얀 글쓰기’를 통해 인간의 일상적인 삶의 문제에 관심 갖던 지리학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한다. 인간의 삶과 밀접한 학문이 지리학이었고, 인간의 삶을 떠나서는 살 수 없었던 학문이 지리학이었음 다시금 상기시켜야 한다. 인간과 공간의 관계에 대해 어떤 지배적인 이념과 허위의식을 걷어내고, 공간을 통해 인간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학문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을 통해 우리 사회의 왜곡된 공간구조를 보여주고, 굴절된 공간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Kim (translation), 2000, 846).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공간과 쓰여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는 공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을 걷어내고, 그 공간에 거주하는 인간 존재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공간에 대한 통념적 인식에서 벗어나 인정받지 못한 공간을 찾아 드러내고, 그 공간을 통해 자신

을 알리고 싶어하는 인간과의 만남을 기대할 수 있다. 들리지 않는 공간과 쓰여지지 않은 공간에 거주하는 인간의 삶을 모습을 기록함으로써 그들이 우리 사회에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한다. ‘하얀 글쓰기’를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공간에 은폐된 이데올로기를 밝혀내고, 위장된 신화를 무너뜨릴 수 있다. 또한, 관성적 인식에서 벗어나 인간과 공간의 관계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전환점을 제공한다.

지리학자가 다루는 일상 공간은 기쁨과 슬픔, 합리성과 부조리가 함께 섞여 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에 소유하고 있었던 어떤 물건을 빼앗기는 정도의 고통 이상을 경험한다. 그것은 자기 주변의 시간과 공간 전체가 붕괴되는 고통이다. 사랑의 배신은 세상이 온통 무너지는 재난과 같다. 사랑의 죽음과 세상의 죽음은 정확히 같은 것일 수 있다. 함께 했던 공간도 사라지고, 함께 공유했던 시간도 사라진다. 함께 만들었던 이야기도 사라진다. 내가 세상에 존재했었던 많은 흔적이 일거에 소멸한다. 사랑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그런 것이다. 기쁨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기쁨과 슬픔의 공간과 시간이 사라지는 것이고, 삶의 희망이 꺾이는 순간이다. 사랑으로 얻어진 기억의 소멸은 시간의 소멸이 아니라, 공간의 소멸인 것이다.

인간 존재의 삶이 고스란히 퇴적되어 있지만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공간과 인간 존재의 이야기가 쓰여지지 않은 공간의 발견은 우리 사회의 숨겨지고 은폐된 신화의 해체를 가능하게 한다. 그와같은 공간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무의식적인 편견과 차별적인 인식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변화는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수정하게 한다. 지리학은 세상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세상과 소통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는지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다면 지리학의 역할이 미진했을 수 있다. 그렇기에 새로운 공간을 발견하고,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리학이 세상에 필요한 학문이며,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근원적 인식의 틀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인문학이 지리학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얀 글쓰기’의 관점은 지리학이 조금 더 비판적으로 세상과 조우하기를 바란다. ‘하얀 글쓰기’를 통해 바르트어 언어의 원형을 복원하려 했듯이, 지리학은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학문이며, 인간이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을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존재론적인 측면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학문이 지리학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4. 인문학으로서 다시 시작하는 지리학의 부활

본 연구는 철학적 차원에서 ‘인정’을 이용하여 인간 존재에게로 한걸음 더 다가가고자 했다. 인정은 인간의 근원적 욕구이고, 인간의 근본적 문제이다. 인간에게 공간은 자신을 드러내주는 근원적 토대이다. 이같은 토대위에서 전개되는 인간의 다양한 생활모습을 인정을 통해 설명하려 했다. 우리의 일상 공간은 다양하다. 우리가 인정하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이 혼재한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공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견디어 가는 사람들의 공간도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 사회적 소수자의 공간은 우리의 인식에 자리하기 어렵다. 하나의 절대적인 가치체계에 의해 인정되는 양상은 사회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소외시킨다. 세상이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한다. 그들은 인정투쟁조차 꿈꾸지 못한다.

하지만, 서로주체성에 근거한 상호인정 과정은 그동안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던 공간을 받아들인다. 그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 갖는다. 인정은 근원적 차원에서 인간과 공간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지리학은 상호인정 과정을 통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쓰여지지 않은 타자화된 공간을 발견한다. 새롭게 발견된 공간은 우리 사회에 거주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층위를 보여준다.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권력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인간에 대해 이해하게 한

다. 새롭게 발견한 공간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과 문제점을 숨기고 있는 공간인지 모른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화를 보여주지 못하는 공간이기에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공간인지 모른다. 그렇기에 그런 공간에 대한 발견은 권력의 위선과 허위의식을 파헤칠 수 있고, 불순한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게 한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부조리한 모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한다. 그것을 통해 그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의 삶에 주목하게 하고, 그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린다.

크리스테바(Kristeva)는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정신적 공간이라 말한다. 정신적 공간이 인간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신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신적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항을 ‘다시 시작하는 부활’이라는 뜻으로 되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반항(revolte)’의 어원이 산스크리트어의 ‘vel’에서 파생된 것으로, ‘떨침, 발견, 과거로의 회귀, 새로운 시작’이란 뜻을 갖고 있다. 또한, 프로이트적 관점에서 과거의 회상은 반항이고, 과거를 되찾으려는 행위는 운명을 바꾸는 행위라고도 한다(Kang (translation), 2010, 273-274).

지리학을 새로운 관점에서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담론 생산은 크리스테바가 언급하는 반항의 연장선에 있다. 통념적인 지리인식에 대한 반항을 통해 다시 부활하기 위한 것이다. 단순하게 과거의 영화를 부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인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던 학문으로서 지리학의 전통을 복원하면서도 변화하는 인간과 공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진화하기 위한 반항이다. 미래에 닥칠 위기 상황에서도 굳건히 버티나갈 수 있는 지리학의 힘을 축적하기 위한 반항이다. 인간의 삶이 공간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공간은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Park & Kim, 2001, 5). 공간은 장기지속의 시간이기에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 우리 몸이 처해있는 공간과 그 공간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고,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이 지리학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반항인 것이다.

지난번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과목 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리학의 위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아직도 잠재해 있다. 그것이 또 어떤 상황에서 언제 등장할지 모른다. 지리학이 아직도 위기에 봉착해있으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하고, 어떤 새로운 인식을 토대로 세상과 소통해야 하는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한 번의 기획으로 정리될 수 있는 위기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한번 스쳐지나가는 위기였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리학의 위기는 진행형이다. 지리학이 자신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지 못하고, 학문적 존재이유를 설파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모습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공간은 하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세상을 인식하는 기본전제이다. 공간은 인간의 본질적 기원에 맞닿아 있는 근원적 요소이다. 그렇기에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지리학은 인간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본질적이고 근원적 차원에 천착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 지리학은 세상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미래의 유토피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공간은 존재한다. 공간이 존재하는 한 인간의 삶은 계속된다. 지리학은 인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한 학문적 존재이유를 담보 받을 수 있다. 인간과 공간의 관계는 변화하고, 진화한다. 지리학 역시도 진화하고, 변화한다. 지리학의 변화와 진화가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인간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변화이기를 바란다.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소거시킨다. 여러 개의 해답을 갖고 차이와 다름에 대한 인정을 통해 인간과 공간의 관계에 대해 보여주고, 말하고, 쓸 수 있는 학문이 지리학이길 바란다.

주

- 1) 대한지리학회에서 2010년 대한지리학회지 마지막 호인 45권 6호에 '지리학의 필요성과 지리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기획 특집을 마련한 것을 의미함.
- 2) 프레시안에서 책 소개와 관련된 기사에서 아이디어를 얻었

다. 정확한 출처를 표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 생각의 기원이 그 책 소개자에게 있음을 밝힌다.

- 3) 호네프는 인정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자 각 개인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계, 즉 긍정적인 자기의식을 갖게 되는 심리적 조건으로 본다. 그런 점에서 헤겔과 호네프의 인정 개념은 차이를 보인다.
- 4) 호네프는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미드의 사회심리학을 이용하여 인정의 문제를 전개해간다. 미드는 '주격 나'와 '목적격 나'를 구분하고, 이 양자 간의 관계를 통해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Moon (translation), 2011, 144-182).
- 5) 부버의 사이존재와 후설의 상호주관성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하다. 서로 다른 두 주체의 생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이존재와 후설의 상호주관성은 유사한 점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개념을 구분한다면, 부버의 사이존재는 인간의 신체와 신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여기'에서의 실존적인 관계를 중시한다. 반면에, 후설의 상호주관성은 신체가 배제된 현상의 문제이고, 의식의 문제인 것이다(Yoon, 2003).
- 6) 운동장이라는 공간도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놀이공간이지만, 아이들의 관점에는 고학년들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의 공간일 수 있다. 기능적 측면에서 공간은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 공간이 갖고 있는 의미는 사람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에 다층적인 것이다.
- 7) <http://blog.ohmynews.com/jkjbjou/258517>

참고문헌

Ahn, S. M. (translation), 2009 Zur Kritik der Kategorie der Anerkennung(Dialectics of Recognition: eng. ver.), *proceedings of relocating the other:cultural politics of alterity*, Ewha Hk International Conference, 423-432 (in korean).

Anderson, J. (translation), 1995, *The struggle for recogniton:the moral grammar of social conflicts*, Th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Choi, B. D., 2009, Multi-cultural space and glocal ethics:from cultural space of transnational captalism to space of recognition struggl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 geographers*, 15(5), 635-654(in korean).
- Choi, B. D., 2010, *Critical Ecology and Environmental Justice*, Hamul, Seoul(최병두, 2010, 비판적 생태학과 환경정의, 한울, 서울)
- Choi, B. D., Lim, S. H., Ahn, Y. G. and Park, B. G., 2011, *Glocalization and Multicultural Space*, purungil, seoul(최병두 · 임석희 · 안영진 · 박배균, 2011, 지구, 지방화와 다문화 공간, 푸른길, 서울).
- Knag, J. H. (translation), 2010, For Humanists, sakyejul, paju(강주현 역, 2010, 휴머니스트를 위하여: 경계를 넘어서 세계지성 27인과의 대화, 세계절, 파주; Constantin von Barloewen, 2007, *Le Livre des Savoirs: Conversations avec les Grands Esprits de Notre Temps*, Grasset & Fasquelle).
- Kim, D. H., 2009, Asymmetric Structure of Recognition, Community and Religion: in Hegel's Political Philosophy, *Study of Political Thoughts*, 15(1), 158-243(in korean).
- Kim, H. Y., (translation), 2000, *La vie mode d'emploi*, bookworld, seoul(김효영 역, 2000, 인생사용법, 책세상, 서울; Perec, G., 1978, *La vie mode d'emploi*, hachette, paris).
- Kim, S. B., 2008, *The Ideology of I-You Identity*, Ghill, paju(김상봉, 2008, 서로주체성의 이념, 한길사, 파주).
- Kim, W. C. and M, K. H., 2005, *The three circles*, Hangilsa, paju(김우창 · 문광훈, 2005, 세 개의 동그라미: 마음, 이데아, 지각, 한길사, 파주).
- Moon, S. H. (translation), 2001, Interview with Axel Honneth,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studies of philosophical thoughts* 2, 194-212 (in korean).
- Lee, C. N., 2010, Haussmann and the Landscape of the Modern City of Paris, *Culture and Society*, 8, 7-38 (in korean).
- Lee, H. J., 2005, Feministische Identität und Anerkennungstheorie—H Eine Feministische Rekonstruktion der Hegelschen Dialektik,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studies of philosophical thoughts*, 63-84 (in korean).
- Lee, H. K., 2007, *Le città invisibili*, Minumsa, seoul(이현경 역, 보이지 않는 도시들, 민음사, 서울).
- Lee, J. E., 2011, *Nine keyword for human understanding*, Dongnyok, paju(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1, 인간을 이해하는 아홉가지 단어, 동녘, 파주).
- Moon, S. H. and Lee, H. J. (translation), 2011, *Kampf um Anerkennung*, aprilbooks, seoul(문성훈, 이현재 역, 인정투쟁, 사월의 책, 서울; Honneth, A., 1992, *Kampf Um Anerkennung*,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 Ma, S. Y., 2008, England Landscape and Landscape theory in the time of Industrial Revolution: Turner's Landscape pictures, *Human Environment · Future*, 1(1), 197-220 (in korean).
- Markell, Patchen, 2003, *Bound by Recognition*, Princeton Univ. Press.
- Nam, Y. W., 2010, Is This Crisis or an Opportunity?: A Consideration about Current Issues on Geography and Geography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5(6), 691-697 (in korean).
- Han, J. S., 2007, Merleau-Pontys Paul Klee: Malerei macht das Unsichtbare sichtbar, *A Study of philosophy and phenomenology*, 35, 49-79 (in korean).
- Kang, S. J., 2010, Enjoyment of philosophical poetry reading, Dongnyok, paju(강신주, 2010, 철학적 시 읽기의 즐거움, 동녘, 파주)
- Park, S. A., 2010, Le Portrait cultural de la ville tracée par 'les déchets', *Journal of Société Coréenne de Langue et Littérature Françaises*, 84, 909-944 (in korean).
- Park, S. K., 2009, A Search for the possibility of educational anthropology in social studies education, *Research in Social Studies Education*, 16(3), 51-61 (in korean).
- Park, S. K., 2010, Geography and Geography Education as the Humanities: Ask the Raison D'être,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5(6), 698-710 (in korean).
- Park, S. K., and Kim, I. K., 2001, Reconceptualizing the Geography Subject Matter Based on the Everyday Life,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36(1), 1-14 (in korean).

박승규

- Santos, M., 1995, Contemporary Acceleration: World-time and World-space, in Benko, G. B. and U. Strohmayr, *Geography, History and Social Sciences*, Netherland: Kluwer Academic Publishers.
- Shields, R., 1997, Spatial stress and resistance: social meanings of spatialization, in Benko. G. & Strohmayr, U., *Space and Social Theory*, Blackwell, Oxford, 186-202.
- Yoon, S. B. (translation), 2007, Das Problem des Menschen, Ghill, Seoul(윤석빈 역, 인간의 조건, 길, 서울; Buber, M., Das Problem des Menschen, The Martin Estate).
- Woo, J. G., 2007, Zwischen Dialogphilosophie und Dialogpädagogik Martin Bubers,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40, 139-161
(in korean).

교신: 박승규, 200-703,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339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이메일: topos@cnu.ac.kr, 전화: 033-260-6425)

Correspondence: Seung-Kyu Park,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339, Seoksa-Dong Chuncheon, 200-703, Korea (e-mail: topos@cnu.ac.kr, phone: +82 -33-260-6425)

최초투고일 2011. 12. 8

수정일 2011. 12. 21

최종접수일 2011. 12. 23